



광주공항민항기와전투기.

사진=뉴스시스

“광주공항 부지에 한국판 실리콘밸리”... 정부 보증에 기대감 ↑

광주 군·민간공항의 무안 통합 이전이 확정되면서 종전부지에 인공지능(AI)과 첨단기술을 집약한 스마트시티, 한국형 실리콘밸리를 건립기로 한 광주시의 큰 그림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 등을 지어서는 안되고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연구개발(R&D) 기업들이 들어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청사진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군·민간공항 이전에 따른 종전부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 예산 20억원을 내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박근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공항은 1964년 1월 동구 학동에서 광산구 송정동 현 위치로 이전한 후 여객청사와 유도로, 계류장 등을 설치하며 공항의 모습을 갖췄다.

종전부지 여의도 5.7배, 개발계획 용역비 20억 확보
 광주시, AI와 첨단기술 집약 ‘스마트시티’ 조성 계획

이러 1966년 2월에는 제1전투비행단이 사천기지에서 광주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활주로를 민항기와 전투기가 동시에 사용했다.

군공항 부지는 8.2km(248만평)로 상무지구의 2.5배, 탄약고 부지까지 더하면 16.5km(5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5.7배에 달한다.

광주시의 기본계획은 지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인공지능 중심의 실리콘밸리이다. 첨단기술이 집약된 주거·교통·환경·의료·돌봄을 선도하는 스마트시티로 개발하고 인공지능 관련 기업을 유치해 인재 유출을 막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시는 종전부지 개발에만 8356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종전부지 개발은 광주시가 군공항 이전 시설을 먼저 구축한 뒤 국방부에 기부하고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양여 받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여기에 이 대통령이 “아파트 중심의 난개발은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해 광주시는 대형 건설업체 투자를 이끌어 낼 방안도 찾아야 한다.

광주시는 현재의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는 막대한 부지 개발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내용이 포함된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현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부 재산과 양여 재산의 평가 방식을 변경하고, 광주 군 공항 내 미군 시설을 국가 주도로 처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군공항 부지에는 탄약고를 비롯해 미군시설도 상당수 설치돼 있다”며 “미군시설의 경우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안보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가 직접 협상과 이전, 추진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 “현재 군공항 종전부지 개발비용으로 6조에서 최대 10조까지 거론되고 있으며 초기 기본설계도 500억원에서 3000억원의 공적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계획은 무안공항을 서남권 관문으로 육성하고 광주 종전부지는 실리콘밸리로 조성하는 것”이라며 “군공항 완전이전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남은 만큼 특별법 통과와 함께 민간기업이 광주에 통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해 광주의 미래가 담길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기동취재부

전남 행정수도 무안에 국가산단 조성... 지역 성장 엔진 조성 비용 7600억원 추산... “4~5년 내 완공 목표”

전남의 행정수도 무안에 지역 성장의 엔진이 될 국가산단이 조성된다. 광주 민간·군공항 이전 합의에 따른 지원책으로, 무안 지역 첫 국가산단이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 오전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을 위한 6차 테스크포스(TF) 합의에 따라 무안지역 내 국가산단 지정을 추진한다. 무안 국가산단 조성 비용은 76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상 국가산단은 지자체 공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한다. 공모에서 지정까지는 7~10년이 소요된다.

전남도는 보다 신속한 지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지정하는 방법을 강구해달라’는 의견을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정 과정을 최대한 압축, 4~5년 내 완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와 기존 특별법 등을 근거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만으로 1년여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국가가 도로·용수·전력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상당 부분 부담한다. 고속도로·철도·항만 등 광역교통망과의 연계도 용이하다.

법인세·소득세·취득세·재산세 등 국·지방세 감면 혜택은 물론 입지·설비 보조금, 인허가 신속처리,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기업 유치에 유리한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대기업·중소기업 동반 입주, 정부 전략산업 연계 등 산업 집적 효과도 있다. 지역에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입·정주여건 개선 등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전남도는 무안 국가산단을 가칭 분산에너지특화 국가산단으로 명명하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재생에너지 기반을 하는 RE100 산단으로 조성, 인공지능 농산업 컴플렉스·이차전지 첨단소재·항공산업 단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무안공항 서남권 거점 공항 육성,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인접한 고속도로, 풍부한 용수, 저렴한 땅값 등 첨단 대기업이 입주 할 수 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신속한 국가산단 지정을 위해 정부와의 협의를 이어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국가산단은 여수국가산단(부분 준공), 여수 삼일비축기지, 영암 대불국가산단, 광양국가산단(부분 준공), 함평 빛그린국가산단(공사 중), 나주 에너지빛그린산단(공사 중)이 있다.

/염선호 기자

전남도, 고흥사랑기부 담례품 14개 추가 전국 최대 334개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 관광·문화자원 연계한 체험형 눈길

전라남도는 ‘2026년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 선정위원회’를 열어 손두부 만들기 체험과 같은 관광·문화자원 등을 연계해 7개 업체가 제안한 14개 신규 담례품을 선정했다.

이번 선정으로 전남도가 운영하는 고흥사랑기부제 담례품은 총 334개로 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규모를 갖추게 됐다.

전남도의 담례품은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해 지역 공예품, 체험형 서비스까지 폭넓게 구성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지역 자원을 활용한 품목

을 중심으로 품질과 지역성을 함께 고려했다.

특히 목표 ‘플레이파크’ 입장권, 광양도선국사마을 ‘손두부 만들기 체험’ 등 지역 관광·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험형 담례품이 포함돼 기부자가 전남을 직접 경험하는 선택지도 제공한다.

전남도는 담례품 선정 과정에서 서류심사와 품질 검증, 가격 적정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기부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생산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품목 위주로 선정했다.

/이승원 기자

Self **참숯구이**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 - 약품을 쓰지 않은 장어만 판매

영광 법성포 청산양만 명품 장어

無항생제
無균
無소독제!

1일 18회 순환여과 및 미생물 배양 청정시스템으로 국내산 청정 명품장어

HACCP

(위해요소관리우수)
해양수산부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HACCP) 적용지정업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 AQ-0026

무항생제

(NON ANTIBIOTIC)
해양수산부

인증기관명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인증번호: 제15-18-0010

전국 500여 양만장중 무항생제 지정업소 단 1곳
전국 500여 양만장중 HACCP 지정업소 단 3곳

예약문의 T. 062)233-9592

광주 동구 내남동 330-3(월남지구 호반2차 옆 슬바우주유소 옆)

저희 장어명가 청산 장어는 국내유일 무항생제 인증과 해썬(Haccp)으로 인증된 양어장에서 "무항생제, 무균, 무소독제"로 직접키운 명품장어입니다. 무항생제 장어 최고 품질! 장어명가 청산 광주점에서 모시겠습니다.